**제목 : 마지막 악몽**

**<잠에서 깨어난 엘리스>**

엘리스 : ...역시 밤이네..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..

엘리스 : 엄마는 지금까지 날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... 엄마.. 오해해서 미안해요..

엘리스 : 아 참. 이럴 때가 아니지. 빨리 엄마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!

**<엘리스 방 출입문> -> 안열림**

엘리스 : 어떻게 된 거야? 문이 열리질 않아..

엘리스 : 갑자기 사방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..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

**<엘리스 집 전체 어두워짐>**

**<이어서 인형들 눈에 불빛 들어옴>**

곰 인형 대화발생 : 엘리스.. 엄마야. 내 몸은 이제 너무 악화되어 깨어날 수가 없구나. 그래서 이렇게 인형을 통해 너에게 얘기를 전한다..

엘리스 : 엄마! 이 목소리는 분명 우리 엄마야..

곰 인형 : 오늘이 마지막 악몽의 밤이야. 악마는 네 정신을 무너뜨리고 널 차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끌어 모으고 있어.

엘리스 : 그럼 우리 빨리 도망쳐요! 악마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어서!

곰 인형 : 도망칠 수 없단다. 엘리스. 놈은 지금까지 흡수한 모든 영혼의 고통과 슬픔, 증오와 분노를 이끌고 네 앞에 나타날 거야..

엘리스 :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

토끼 인형 대화발생 : 맞서 싸워야 해. 엄마가 도와줄 테니 악마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잃어버렸던너의 삶을 되찾아야 해.

엘리스 :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...

토끼 인형 : 엘리스 넌 할 수 있어. 넌 나의 딸이니까 나는 알 수 있어. 네 안에는 희망을 향한 큰 의지가 들어있단다.

엘리스 : 그럼 엄마도 날 도와주는 거죠?

여우 인형 대화발생 : 물론이야.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내 옆에서 널 지킬 거야.

엘리스 : 알았어요...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악마와 맞서 싸워볼게요.

여우 인형 : 고맙다 엘리스.. 넌 강한 아이란다.. 엄마가 널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..

엘리스 : 저도 사랑해요 엄마..

**<대화가 종료되면 인형들과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.>**

**<침대에서 잠을 잔다>**

**<이드가 책장 앞에 나타나 침대로 달려감> <- 다른 인형들과 같은 패턴**

**<보스전>**

제목 : 악의 근원(빨간색 글자)

삽화1 : 그것은 고대의 어떤 종교집단의 금지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.

삽화2 : 교단은 인간의 욕망과 분노, 탐욕을 흡수하는 장치를 만들었고, 그곳에서 '악의 근원'이라 불리는 존재가 태어났다.

삽화3 : 사람들은 그 존재를 '악마'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숭배했고 악마는 인간의 정신을 흡수하며 점점 더 강해져 갔다.

삽화4 : 그리고 자신을 만들어낸 인간이 결국 자신보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타락시켜 말살시키고자 하였다.

삽화5 : 시체가 산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끝에 악마 앞에 '순수한 인간'이 나타난다.

삽화6 : 그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악마를 꿈의 세계에 봉인하는데 성공한다.

삽화7 : 하지만 악마는 악몽을 통해 약해진 인간의 육체를 옮겨다니며 100년에 한번씩 나타나는 '순수한 인간' 찾아다녔다.

삽화8 : '순수한 인간'의 육체을 빼앗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.

삽화9 : 악마는 어느 한 마술사의 육체를 차지한 채로 여행을 다니던 중 오빠와 함께 마술쇼를 구경 온 '순수한 엘리스'를 만나게 된다.

삽화10 : 그 후 악마는 엘리스의 주변 사람들을 한명씩 타락시켜 죽게 만들고 엘리스의 어머니의 육체까지 차지한다.

삽화11 :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스의 육체를 취하기 위한 검은 악마의 꿈이 시작된다.

**<보스전 전투>**

엘리스 : 여긴 어디지? 왠지 낯익어.. 여긴 내가 다녔던 학교의 교실이야..

엘리스 :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느껴져.. 엄마.. 나에게 힘을 주세요..

이드 : 드디어.. 수확의 시간이 왔어.. 엘리스.. 흐흐흐.. 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...이건 나하고 너무 닮았자나.. 목소리도 내 목소리야!

이드 : 난 이미 너야 엘리스.. 이미 너의 몸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지.. 바보 같은 네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고킥킥.. 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그럴 리 없어.. 난 악마가 아니야!

이드 : 잘 생각해봐 네가 엄마한테 한 행동들.. 그 독설들... 그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? 그것들이 엄마의 병을 악화시켰다는 건 알고 있겠지?

이드 : 요즘 들어 계속 졸리고 잠만 잤지? 밖에는 나가기가 싫고 사람들과 교류하기 싫고 그건 왜 그럴까?

엘리스 : 그럴 수가... 정말로 이미 나도...

곰 인형 : 속지마 엘리스. 넌 아직 악마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어! 놈과 싸워야 해!

엘리스 : 엄마... 난 엄마를 믿겠어요!

이드 : 흥, 이제 곧 죽을 인간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군. 그래 봤자 엘리스는 곧 내 차지가 될거다. 엘리스 너를 나에게 내놔!!

**<이드 전투 대사>**

대사1 : 엘리스 너도 역시 악마야! (빨간색 글자)

대사2 : 엘리스 이제 그만 포기해. 포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편해질 수 있어. 크크크.. (빨간색 글자)

대사3 : 그렇게 도망만 다니지 말고 덤벼봐! 이 겁쟁아!(빨간색 글자)

대사4 : 걱정마 널 차지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악마가 될 테니까 키킥킥.. (빨간색 글자)

대사5 : 넌 나에게 이길 수 없어. 넌 아무런 힘이 없거든! (빨간색 글자)

대사6 : 넌 이제 끝장이야! 너의 죄는 영원히 씻겨질 수가 없어! (빨간색 글자)

**<전투 종료 후 >**

이드 : 이건 뭐지? 내가.. 감히 내가.. 이까짓 어린애한테 졌다고?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넌 나한테 진게 아니야..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진거지..

이드 : 닥쳐라! 미개한 인간 따위에게 또다시 패배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! 너흰 욕망과 증오로 가득 찬 내 먹잇감일 뿐이란 말이다! 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나도 널 용서할 수 없어. 네가 우리가족에게 한 짓은.. 널 소멸시키는 걸로도 성에 안 차.

이드 : 과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? 나를 만든 건 바로 너희 인간이다.. 난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.

엘리스 : 널 파괴한 것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어둠 속에서 기억해. 두 번 다시 돌아올 생각 하지 말고.

이드 : 이 하찮은 개집애가!! 감히 나를... 젠장! 빌어..먹을!!.......

엘리스 : 이제.. 마지막 밤이.. 모든 악몽이 끝났어...